

# “네트워크로 내실 다지자”

공불련 창립 5주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2000년 창립 이후 5년동안 270여 단체, 5000여 회원을 거느린 거대한 신행단체로 성장했다. 사진은 2002년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공불련 창립 2주년 기념법회. 현대불교 자료사진

## 270여 단체 5000여 회원 확보 비약적 성장 10월 1~2월 갑사서 기념행사...새 회장 선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가 내달 창립 5주년을 맞는다.

공불련은 갑사원,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불자회 등 중앙 정부기관 불자회의 주도로 2000년 10월 7일을 세운 이래 비약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5년동안 소속 불자회는 100여 단체에서 270여 곳으로 늘어났고, 중앙정부기관을 비롯해 정부 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5000여 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올 3월 전임 회장이 중도하차한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공불련은 10월 1~2일 충남 공주 갑사에서 5주년 기념법회 및 대의원총회를 열어 지난 5년을 평가하고 보다 내실있는 신행단체로 뿌리내리기 위한 돌파구를 찾는다. 8개월여 공석으로 남았던 회장 선출과 4기 집행부도 이날 구성된다.

공불련은 창립 5주년 기념법회를 공무원불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주춧돌이었던 '도약'의 발걸음을 내딛는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 ■개인역량 결집은 공불련의 '힘'

공불련은 하나로 모아지지 못했던 공무원불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 불자모임이 없는 기관에서는 공불련 창립을 계기로 속속 불자회를 결성했고, 공무원불자 개개인의 역량을 공불련으로 집결해 공무원불자들의 '힘'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시·도청·지방경찰청 등 상급기관의 불자회는 관내 시·군청·경찰서의 불자회 결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상급기관 불자회가 산하 미장립 기관의 불자회를 결성하는 기폭제로 작용한 셈이다.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광역·시·도별 조직체제를 형성하는 기본 골자였다.

공불련 창립은 직장내 신행문화를 정착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1백여 곳에 불과했던 직장 신행단체가 공불련 창립 이후 급격히 늘어나면서 직장내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법회를 여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 됐다. 결과적으로 불자들의 신행이 생활과 가정에서 직장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 ■체제적 조직 관리·인력 육성 등 시급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이름만 유지할 뿐 활동이 전무한 불자회를 재가동시키는 일이다.

공불련 가입단체들의 활동을 보면 그야말로 '천양지차'다. 부산시청, 대구시청, 대전시청 불자회 등이 탄탄한 활동을 보이는 반면, 전혀 활동하지 못하는 단체도 있었다. 법회와 같은 기본적인 신행을 이끌어갈 만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회원 교육과 지역 불교대학과의 연계 등이 절실하다.

지역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일도 공불련이 안고 있는 고민이다.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경남 등은 모든 행정 기관에 불자회가 결성됐지만, 울산과 인천 등은 불자회를 창립한 기관이 한 곳도 없을 정도다. 광주와 충남, 충북, 제주 등도 극소수 기관에 불자회가 생겼을 뿐이다. 전통적으로 불교세가 약한 탓도 있지만, 지역불교계의 무관심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소속단체 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신행관계자들은 조언한다.

이 외에도 비대해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핵심인력 육성, 지역사찰 연계, 지도법사단 구성 등이 시급하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우리단체 이사님

### 이판열

#### 인천중부경찰서 불교회장

이제 겨우 첫돌을 넘기고 두 살을 바라보는 인천 중부경찰서 불교회. 아는 것 많지 않은 초보불자들이지만 열정은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그 중심에 이판열 회장(58·경주과장·사진)이 있다. 저마다 업무에 바쁜 회원들을 하나로 모아 신행과 포교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그러나 이회장 역시 초보불자다. 불교회가 만들어지기 전 이회장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 다녔던 아련한 추억을 지닌 평범한 경찰이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절에 갔던 일이라고는 기억해야 여행 삼아 갈 때 뿐. 그것이 이회장에게는 마음의 빛으로 오래 남아 있었다.

"인천중부경찰서에 불교회를 만들자는 김진홍 前 대한민국경찰불교회 사무국장의 제안을 받고 오랜 세월 마음을 짓눌렀던 빛을 갖기 위해 맨 앞을 섰습니다. 회장을 맡은 뒤 회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불교대학에 다니는 늦깎이 학생이 됐어요."

올 3월 경찰불교대학에 입학한 이회장은 회원들

의 '신행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월2회 정기법회와 분기별 성지순례, 인터넷 카페 운영, 7개 관내 복지시설 후원 등을 직접 챙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과 전·외경에게 매월 <법공양(불교신행연구원) 刊> <생활 속의 불교(해동불교) 刊> <법륜(근교신행회) 刊> 등의 불교 교양 잡지를 나누어주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100여 회원 대부분이 초심자였기에 제가 아니라도 누구든 해야 할 일이라서 제가 나선거예요. 회원들이 환희심을 내거나 열심이 신행할 때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회원이 들어올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이회장은 처음으로 충남지방경찰청 산하 모든 경찰서에 불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천 지방경찰청이 그 뒤를 잇게 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동부경찰청서와 계양경찰청서, 연수경찰청서에 불교회를 만들면 가능한 일이다. 이판열 회장은 쉽지 않겠지만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자신한다.

박봉영 기자

## 마곡사·현대불교 공동주최

#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결산

# 지도자 과정 개설 '맞춤 포교' 절실

## 7월 1일~9월 4일까지 10회 진행 사회 소외자들 보듬어준 알찬 기획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유는?

-오랫동안 템플스테이를 주관하다 보니, 상심이 크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그들은 단순히 사찰체험을 하러 오기보다는 자신의 내부에 깊이 내재돼 있는 슬픔, 외로움, 절망 등을 보듬어줄 무언가를 찾아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처님의 자비로 안아주고자 동병상련의 사람끼리 모아 본 것이다.

▲특히 호응을 받았던 프로그램은?

-유서를 써서 읽고 냇가에 나가 태우고 들어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세 가지를 선택하는 '구름이 흩어지듯'이란 프로그램이 있다. 경전에 '생아일편부운기 사아일편부운멸(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이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착안해서 만든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대부분이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의 마음이 정화되어 새로 태어나는 느낌이라고 토로한다.

템플스테이 마지막에 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프로그램은 상봉경 보살이 되어 참여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며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이다.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어 행복해 한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시작된 템플스테이가 주류 근무제와 웰빙의 확산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총 3만7천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5만명이 넘

## 마가 스님

### 역직 포교 역효과, 부처님 대하듯 스님, 기업 CEO 등에 실시할 것

을 것을 예상하는데, 오랜 경험으로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조언한다면?

-템플스테이 참여자들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이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인데 그들의 언행을 통해 불교를 이해한다. 따라서 템플스테이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실무자를 배치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이 진행자들의 자비의 미소를 머금은 환한 얼굴이다.

각 사찰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템플스테이를 이용해 일반인 포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냐고 한 목소리인데...

-불교를 말로 설명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친근감을 느끼고 또 찾아오게 된다. 역직로 포교하려고 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찾아오는 이들을 부처님 대하듯 하면 된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 '자비명상'은 학교, 복지관, 문화센터 등 어느 곳 어느 단체에든지 거부감없이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지도할 사람이 부족하다. 따라서 스님들을 위한 '자비명상'을 하고 싶다. 강원이나 중앙승가대 스님들이 자비명상템플스테이를 배운다면 이 스님들이 10년, 20년 후엔 지도자가 되어 많은 포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신행단체 대표나 기업의 CEO를 위한 '자비명상'도 실시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한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눈높이포교, 맞춤형포교가 절실하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 마곡사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이모 저모

### ●참가자들의 '엄마·언니·누나' 묘운 스님



푸근함으로 참가자들의 엄마, 언니, 누나가 되어줬던 묘운 스님(사진). 묘운 스님은 지도법사 마가 스님을 보좌하며 열 번의 '자비명상 템플스테이'가 잘 회향되도록 이른 '숨은 살림꾼'이다. 스님은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웃음과 재미가 가득한 프로그램으로 꾸미는데 특별한 역할을 했다.

묘운 스님은 1989년 출가 당시부터 '자비'를 화두 삼아 정진했고 마가 스님을 만나 명상 공부를 시작했다. 그 후 마가 스님이 마곡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을 돕기로 하고 1년여 전부터 마곡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지도하고 있다.

### ●미움과 증오 버리고 남편으로

1차 '자비명상'에 참여한 한 주부는 남편에 대한 미움을 거두고 5년 만에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마음 한편에 자리했던 증오와 분노를 버리니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고 나중에 템플스테이 관계자에게 토로했다.

### ●'이혼자' 참가자들, 꾸준한 모임 가져

"매일 언니 오빠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도 날리고 있어요. 인터넷에는 카페가 만들어져 컴퓨터를 잘 아는 '온비명' 언니가 관리하고 있죠." 2차 '이혼자'를 위한 세울 발 참가자들은 이후에도 꾸준한 모임을 갖고 있다. 템플스테이 직후 서로에게 잘 지내

라는 핸드폰 문자를 보낸 일이 계기가 돼 얼마 후 인터넷에 전용카페가 개설됐으며 8월에는 서울에서 1차 모임도 가졌다. 11월에는 천안에서 2차 모임을 열 예정이다.

'반아'라는 별칭의 참가자는 "천안에 사는 언니와는 우리가 전생에 친자매였다고 말할 정도로 친하게 됐다"며 "템플스테이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 ●'부모-자녀 간 대화 이어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호젓하게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할만한 여유를 찾기 위해 템플스테이를 왔어요." 3차 '가족명상'에 참가한 가족들은 대부분, 사찰을 찾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산이나 바다로 향하면 물러드는 휴가철 인파에 지치고 피서지에서 노느라 바빠 정작 가족과 깊은 대화를 할 시간이 없는 것.

아이가 수험생이 되기 전에 서둘러 참가했다는 부모, 어린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참가했다는 부모 등 각각각색이었지만 '대화가 소중하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

"속상했던 상황을 서로 이야기하면 어떤 가족은 '똑같은 상황을 우리 부부가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부부간의 사소통의 비중을 높여야겠다"며 활짝 웃기도 했다.

### ●'무뚝뚝하던 아빠가 변했어요!'

집에 오면 밥만 먹고 말 한마디 않던 무뚝뚝한 아빠가 변해도 너무 변했다. 7차 '부부명상'에 다녀온 한 부부는 남편의 변화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템플스테이 후, 아빠가 가족들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해 부인과 아이들이 모두 깜짝 놀라기도.

40년동안 '속만 썩인' 한 남편은 템플스테이에서 부인에게 절을 하면서 "미안하다" 한마디를 하니 당사자는 물론 참가자 전원

을음을 터뜨려 울음바다가 되었다. 감격에 찬 부인의 말 "지금 죽어도 후회 없이요."

### ●참가자 없어 '장애인 가족'은 불발

8차 '희망나눔 - 장애인 가족을 위한 템플스테이'는 가장 관심을 모았지만 열리지 못했다. 장애인 가족의 참여가 너무 적어 일반 가족 템플스테이로 바뀐 것. 장애가 있는 한 가족이 왔지만 그 한 가족마저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포기해 버렸다. 장애인들이 낮은 환경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가족의 노출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한 사례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장애인을 둔 가족의 서로 부딪혀 생긴 상처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기에 아쉬움이 더 컸다.

### ●참가후 기독교서 불교로 개종

가족이 연이어 참가한 경우도 있다. 9차 '60대 이상 노인을 위한 자비명상'에 참여한 어머니 박중숙(56) 보살에 이어 어머니의 권유로 아들 신현범(30)씨도 10차 '취업대기자를 위한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다. 특히 어머니는 템플스테이에 다녀온후 그동안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불교로 개종까지 했다.

이장원(55) 이진수(20) 부자는 10차례 나란히 참가했다. 아들 진수씨가 곧 일반 유학을 떠나기로 되어있어 이번 템플스테이가 부자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됐다고 한다.

### ●'사찰순례를 템플스테이로 대체'

마곡사 템플스테이 기사가 계속 소개된 <현대불교>에는 독자들과 문의전화도 끊이지 않았다. 참가방법을 묻는 불자들의 문의와 함께 사찰들의 문의도 많았다.

어떤 사찰의 스님은 "해마다 하는 사찰순례를 마곡사 템플스테이로 대체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기도. 천년고찰의 멋도 느끼고, 자신의 삶도 돌아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니냐고 그 스님은 덧붙였다.